

TV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아침경제 골든타임	50 광복 70년 특집 인간극장 <안데스의 사랑방 부부>		10 지역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의 내머느리>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네트워크 특선 총출품 55 바르셀고운말	00 방학특선 글로벌 다큐멘터리 5부작(재)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닥터365 3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특제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10 MBC 정오 뉴스 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00 SBS12뉴스 50 닥터 365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시간을 달리는 TV(재)	10 광복70주년 특집시사토크 MBC 국민대토론 우리함께 코리아(재)	00 KBC 열린토론회(재)
2	00 명인(재) 50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30 동물가족 체험기 와일드 패밀리(재)	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직언직설	40 야생일기(재) 50 바르셀고운말 55 토크생활체조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서어 40 문화사책	00 SBS 뉴스 10 절망고 걸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재)
4 30 레드나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TV유치원 30 별별가족 35 동물의 세계 55 400회 특집 대 100 <세프특집>	2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00 MBC 뉴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5 4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라피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가족을 지켜라	30 생생정보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별난 며느리>	00 월화 특별기획 <화정>	00 월화드라마 <미세소검>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어부의 반찬	15 힐링캠프 500인
12 4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재)	20 세계를 바꾼 명탐정 실록 홈즈 제1편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MBC 뉴스24 3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0 실컷나는 세상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영화 '암살' 광복절 1000만 관객 돌파

최동훈 감독 '도둑들' 이어 두번째 쾌거 '관객들과 뜻 깊은 소통 기쁨'

이름없는 독립운동가들의 싸움을 담은 영화 '암살'이 광복 70주년이자 개봉 25일째인 15일 오전 1000만명을 돌파했다. 배급사 쇼박스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은 이날 오전 8시까지 100만4천4천명을 모았으며 밤12시까지 모두 1033만 7000명을 동원했다. 올해 1000만명을 돌파한 한국영화는 처음이다. 할리우드 영화로는 지난 4월 개봉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저스-에이 지 오브 울트론'(1049만명)이 1000만명을 넘었고 한국영화로는 작년 말 개봉작인 '국제시장'(감독 윤제균, 10425만명)이 있다. 1000만명 돌파는 한국영화로는 12번째, 외화를 통틀어서는 16번째다. 최동훈 감독은 2012년 '도둑들'에 이어 연속해 1000만명을 돌파하는 영화를 만들어 윤제균 감독('해운대', '국제시장')에 이어 '천만 영화' 두 편을 낸 2번째 감독이 됐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암살'은 순제작비 180억원의 대작으로

'엘메이드 상업영화'의 대표주자인 최 감독이 연출했고 톱스타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가 주연을 맡았다. 오락적인 재미와 독립운동가의 싸움 및 쉽게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 등을 그려낸 사회적 의미가 어우러진 점이 관객에게 통했다. 또한 여름 성수기에 광복 70년을 맞은 시기도 잘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 감독은 "나에게는 도전이자 정말 오랫동안 만들고 싶었던 작품이었다"며 "관객들과 뜻 깊은 소통을 나눈 것이 정말 기쁘다"고 1000만명 돌파 소감을 밝혔다. '암살'의 천만 돌파로 배우들도 새로운 흥행 기록을 쓰게 됐다. 오달수는 목소리 출연한 '괴물'부터 '도둑들', '7번방의 선물', '변호인', '국제시장'에 이어 '암살'까지 6편의 천만 영화에 출연한 진기록을 세웠다. 전지현, 이정재, 김혜수는 '도둑들'에 이어 두 번째, 조진웅은 '명량'에 이어 두 번째 천만 기록을 달성했다.

홍상수감독, 로카르노국제영화제 황금표범상

신작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정재영 남우주연상 겹경사

오랜만에 국제무대에서 한국 영화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홍상수(55) 감독의 신작이자 17번째 장편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사진)가 제68회 스위스 로카르노국제영화제 국제경쟁부문 대상인 황금표범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남자 주연 배우 정재영이 이번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게 되면서 겹경사가 겹쳤다.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홍 감독의 이번 수상은 배우군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1989)에 이어 한국영화가 26년 만에 거둔 쾌거다. 홍 감독이 가장 최근에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무대도 로카르노국제영화제였다. 홍 감독은 2013년 영화 '우리 선의'(2013)로 같은 부문에 초청돼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다. 그는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올해 대상과 남우주연상을 거머쥐면서 명실 공히 전 세계 영화계가 주목하는 거장임을 입증했다. 로카르노영화제는 1946년 처음 개막한 이래 스위스 최대의 규모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베를린·칸·베니스 영화제와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영화제로, 세계적인 거장도 평가받는 스탠리 큐브릭, 밀로시 포르만, 벨라 타르, 천 카이거, 구스 반 산트 등의 초창기 작품들이 이 영화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홍 감독은 한국의 영화감독 중 세계적인 국제 영화제에 단골로 초대받는 감독이다. 2010년 세계 3대 국제영화제 가운데 하나인 칸 영화제에서 '추월할만한 시선상'을 받기도 했다. 그의 데뷔작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1996)은 영화계와 대중에게 그간 한국영화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충격과 통증을 던졌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도 영화감독과 화가의 일상을 소재로 시간의 재구성이라는 홍상수 감독 특유의 기법이 살아 있는 영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내달 말 개봉 예정이다. 이번 영화를 통해 정재영과 김민희가 '홍상수 사단'에 합류했다. 홍 감독은 지금까지 유준상, 이선균, 윤여정, 문소리, 고현정 등 내로라하는 배우와 작업하며 이들의 '가장 인상적인 연기'를 이끌어낸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픈 역사 노래로 풀고 싶었죠"

새 앨범 '광복 70주년' 발표한 남궁옥분

광복 70주년인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명이 세상을 떠났다. 정부에 등록된 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47명으로 줄었다. "등록된 피해자 수가 238명이지, 아픔을 갖고 가정을 꾸린 분도 있을 것이고 이미 외롭게 떠나간 분들도 계시 겁니다. 꽃처럼 아름답던 청춘을 잃어버린 그분들의 한과 설움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포크 가수 남궁옥분(57·사진)이 최근 발표한 새 앨범 '광복 70주년'에는 '봉선화'란 곡이 있다. 위안부 피해자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썼다는 이 곡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노래'란 부제가 붙었다. "비를 기다려 울던 세월/ 하늘 두고 하소연했지/ 그 하늘 바 꾸어도 낯선 바람/ 누군 위해 불었던가/ 잊으려도 자유로도/ 죽어서도 죽지 못하네/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에/ 단 하루는 옥심인가~.'(봉선화) 이 앨범은 남궁옥분이 사비를 털어 지난 5월 무료로 출시했지만 광복 70돌을 맞는 15일을 앞두고 주목받았다. 그는 지난 해 싱글을 냈지만 신곡이 담긴 앨범을 낸 건 1993년 정규 앨범 이후 22년 만이다.



"제가 의식 있는 뮤지션이란 게 아니라, 정말 소박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한 번쯤은 노래하고 싶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일제 강점기와 분단을 거친 부모 세대를 통해 시대의 아픔을 알고 나를 사랑하는지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등 대중적인 포크 음악을 부르며 1980년대 큰 사랑을 받은 남궁옥분과 다른 결의 음악이어서 의외지만 사실 이 앨범은 10여 년 전에 완성됐다고 한다. 5곡 전곡을 작사·작곡한 앨범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한 맺힌 삶부터 분단된 조국의 아픔까지 오롯이 새겨져 있다. 특히 '함께'는 광복 60주년 8월 15일 밤 이문세, 김세환, 최백호, 유익중, 박학기, 변진섭, 김범룡, 추가열 등과 함께 부른 곡을 10년 만에 실었다. '아리랑'은 명상을 통해 삶의 지향점을 가려는 의지가 담긴 개인적인 의식의 곡이라고 한다. /연휴뉴스

EBS 1

05:00 EBSe 생활 영어	09:35 이연 스페이스 정글	14:45 미앤마이로봇	19:30 EBS뉴스
05:30 건강한 아침	09:40 토크쇼 부모-고수다	15:00 반짝반짝 발명 클럽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5:40 나의 성공비결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내 친구 아서	20:40 다큐 오늘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시계마을 타기톡!	20:50 세계테마기행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5:45 미술 탐험대	<인도네시아 화산섬 자바를 가다>
07:15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16:00 당동맹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태백 삼척>
07:30 출동! 슈퍼왕(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놀이 구구대, 보잉	21:50 EBS 다큐프라임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45 굿데이 친구들(재)	<맛이란 무엇인가>
08:00 당동맹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7:0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22:45 달라졌어요
08:20 두다디콩(재)	13:1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3:35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학교교육백년사
08:3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13:40 출가운 수학 EBS MATH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4:25 지식채널e
08:50 굿데이 친구들	13:50 초중 3년 EBS 여름방학생활	17:45 꼬마버스 타요	24:30 EBS 인문학 특강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15 피터 래빗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	
09:20 놀이 구구대, 보잉(재)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올림포스 <국어-알파개념>	13:05 " 고교 Basic Grammar-junior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40 초등 2년 EBS 여름방학생활
00: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 B형>	07:3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0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01:40 " <문학-알파개념>	14:50 올림포스 <문학-알파개념>(재)	08:00 9급 소방안전직 시험대비 강좌	16:20 초등 4년 EBS 여름방학생활
02:30 " <미적분>	15:40 " <미적분>(재)	08:30 A.T 시험대비강좌	16:4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03:20 " <수학 1>	16:30 " <수학 1>(재)	09:00 출가운 수학 EBS MATH	17:00 초등 6년 EBS 여름방학생활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 <미적분>	17:20 " 평가문제 <미적분>(재)	09:10 15일의 기적 <국어(3)(4)>	17:20 초등수학 개념잡기
05:00 뉴턴스런 <물리>	18:10 2016 N제 <국어 A>	09:50 " <수학(2)>	17:50 다큐 오늘
06:00 " <생명과학>	19:30 " <영어>	10:30 " <영어(2)>	18:00 EBS TV중학 <국어(5)(6)>
06:50 " <동아시아사>	20:00 EBS스타강사 특강	11:10 " <사회(2)>	18:40 " <수학 3(상)>
07:40 " <윤리와 사상>	20:50 인터넷 뉴스 <국어 A>	11:50 " <과학(2)>	19:20 필독 수학 계제사
08:30 2016 수능개념 <유해정 의국어>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12:30 실전취업가이드	20:00 EBS 기획특강
09:20 " <심주석의 수학>	21:50 " <문학A형>(재)	13:10 15일의 기적 <국어(5)(6)>	20:50 EBS 기획시리즈
10:10 2016 수능완성 <영어>	22:30 최재홍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3:50 " <수학(3)>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1:00 " <수학>	23:10 인터넷뉴스 <영어독해연습-종합>	14:30 " <영어(3)>	22:00 15일의 기적 <과학(3)>
12:15 올림포스 <국어-알파개념>(재)	23:50 지식채널e	15:2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22:40 등업산공 <수학 3(상)>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7일(음 7월 4일 乙丑)

48년생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지만 점차 확대일로에 놓인다. 60년생 특별한 형태로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72년생 징후를 무시한다면 위태로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84년생 뜻을 명백히 밝혀두는 것이 무탈하다. 행운의 숫자 : 12, 70	42년생 근심 없이 편히 지내겠다. 54년생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관행 속에 위험 인자가 숨어 있으니 잘 살펴보자. 66년생 한 번 선택한다면 돌이킬 수 없음을 알라. 78년생 목적의식이 분명해 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96, 76
49년생 일관된 마음으로 지속되어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61년생 발전적인 이동수가 보이니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하라. 73년생 그림의 띄어쓰기 저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85년생 서로 입장을 맞바꾸어 생각해 보자. 행운의 숫자 : 29, 47	43년생 뜻이 있는 곳에 분명코 길이 있느니라. 55년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순조로움을 이끌 것이다. 67년생 길이 있게 관찰하려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79년생 김상의 징후가 조조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61, 66
38년생 절제 할 줄 알아야 지속 가능할 것이니라. 50년생 중요한 기회들이니 잘 활용해 보아라. 62년생 당연시 해왔던 것에 한계가 보인다. 74년생 미리 서둘러야한다. 86년생 대화를 나누보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21, 64	44년생 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밖에 없다. 56년생 표면적인 상황이므로 그다지 별의미는 없다. 68년생 깨를 같이 하지 않으려는 요소가 보인다. 80년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발전하는 국면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80, 19
39년생 고강도의 조치만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 51년생 서로 간의 관계를 감안하라. 63년생 하자가 있던 것이 드디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75년생 재조명하게 되리라. 87년생 배후에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53, 71	45년생 차례대로 실행 했을 때 더 생산적이나니라. 57년생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쾌하게 정리 될 것이다. 69년생 반드시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81년생 무시한다면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0, 88
40년생 한 시름 놓게 되리라. 52년생 최선을 다 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느니라. 64년생 어떠한 시세가 되든지 간에 양상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76년생 태도와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된다. 행운의 숫자 : 08, 83	46년생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58년생 현재의 경제성에 구애 받지 말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정하라. 70년생 즐겨 쓰는 방법대로 이행해야 실수하지 않느니라. 82년생 환구하고 있어야만 효과를 보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91, 28
41년생 질만 활용하면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니라. 53년생 잠깐 동안의 현상이 전체적인 범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65년생 실제적이야만 한다. 77년생 기본적인 본분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59, 43	47년생 난관과 유혹이 있어라도 이겨내야 한다. 59년생 빈틈이 없어야만 회생을 최소화할 수 있느니라. 71년생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3년생 이제는 결단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도다. 행운의 숫자 : 36, 97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